

# 단어조성수법으로서의 혼성법에 대한 리해

허 철 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동무들은 그전의 말을 잘 다듬는데 그치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무들 자신이 더 깊이 연구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32권 361페이지)

어휘의 풍부성은 조선어의 중요한 우수성들중의 하나이라고 할수 있다.

조선어의 어휘가 대단히 풍부한것은 단어조성재료가 풍부한데도 있지만 단어조성수법이 다양하게 발전되어있어 새말만들기가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있는것과도 중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지난 시기 단어조성론분야에서는 조선어의 단어조성수법들 가운데 합침법과 덧붙임법, 소리바꿈법, 품사바꿈법이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적지 않게 언급하였지만 혼성법이 있다는데 대하여서는 별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이 수법을 독특한 하나의 새로운 단어조성수법으로 보지 못하고 많은 경우 합침법이나 줄임법의 한 갈래로만 보아왔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혼성법이 왜 독자적인 하나의 단어조성수법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주로 합침법과 줄임법의 한 갈래인 합성줄임법과의 련관속에서 해명하려고 한다.

《조선말대사전》(증보판, 사회과학출판사, 2007년)에서는 합침법과 줄임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있다.

합침법[명] 《언어》 단어만들기수법의 기본부류의 하나. 둘 또는 그 이상의 자립적인 바탕말들이 합쳐져서 합친말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예를 들면 《손-발→손발》과 같은 것이다. 합침에 참가하는 바탕말들의 특성에 따라서 단순합침법, 확대합침법, 지정합

침법 및 복합합침법으로 갈라진다. 합침법은 우리 말 단어조성에서 가장 력사가 오래며 또한 가장 생산적인 수법이다.(=)합성법①

줄임법[명] 《언어》① 단어만들기수법의 한가지. 바탕말의 소리마디를 줄이여 새말을 이루는 수법이다. 어음구조상 보다 복잡한 바탕말로부터 보다 단순한 새말이 이루어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거기⇒게》, 《주룩주룩⇒주루룩》과 같이 하나 또는 되풀이된 말뿌리적단위들로부터 소리마디나 말소리가 줄어져 새말을 이루는 《(소리)마디 줄임법》과 《공업대학⇒공대》, 《지하철도⇒지철》과 같이 둘이상의 말뿌리적단위들로부터 소리마디들을 줄이면서 말뿌리적단위들을 합쳐 줄임법을 이루는 《합성줄임법》으로 갈라진다.

② 문체론적수법의 하나 곧 문장의 한 부분이나 한 문장 또는 몇개의 문장을 줄여서 표현적효과를 높이는 수법이다. 정서적색갈과 간결성을 보장하는데 큰 작용을 하며 시어에서 운율조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된다.(=) 생략법 ①

우에서 알수 있는것처럼 일반적으로 합침법은 합친말을 조성하는 수법이고 줄임법은 준말을 조성하는 수법이다.

그러나 혼성법은 이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다.

실례로 지역이름인 《자강도》의 단어조성을 보면 알수 있다. 《자강도》는 옛날 조선팔도의 지명을 붙이던 수법들과 마찬가지로 《자성》과 《강계》의 첫자를 따서 이름지은것이다. 여기에서 보면 두 도시의 이름에서 각각 첫자를 따온것이 곧 두 도시만을 명명하는것이 아니라 그 두 도시를 포함하여 옹근 하나의 도급행정구역을 명명한것으로 된다.

두 도시의 이름에서 각각 첫자를 따온것

은 일종의 선택으로 되고 다음자를 각각 버린것은 제한으로 되므로 지명의 선택적제한이라고 말할수 있다. 두개의 지명에서 한마디씩을 토와 같은 문법적수단의 도움이 전혀 없이 묶어놓은것은 일종의 합침의 수법이라고도 말할수 있고 두개의 지명에서 각각 뒤마디를 줄인것은 줄임의 수법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하지만 혼성법은 단순히 합침과 줄임을 기계적으로 결합한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단어조성방식들을 하나의 통일적과정으로 리용한 수법이라는 측면에서 단어조성의 새로운 수법으로 된다.

이 글에서는 하나의 말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말뿌리들이 각각 또는 그중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리저리 끼이도록 합쳐지는 수법으로 새말을 만드는 수법이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단어조성수법을 가리켜 《혼성법》이라고 명명하였다.

혼성법은 합침법이나 줄임법의 한 갈래인 합성줄임법과 형태적으로 볼 때에는 서로 공통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독특한 단어조성수법이다.

우선 혼성법은 합침법과 서로 구별된다.

합침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말뿌리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수법이다.

실례로 《남새》라는 말뿌리와 《밭》이라는 말뿌리가 서로 합쳐져서 새롭게 《남새밭》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 수법이 바로 합침법인것이다.

혼성법은 서로 다른 두개이상의 말뿌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단일한 의미론적단위 즉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합침법과 공통성을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례: (혼성법): 정휴양소(정양소+휴양소)

(합침법): 눈보라(눈+보라)

우의 두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혼성법도 합침법과 마찬가지로 두개이상의 단어들 이 하나로 결합되어 단일한 의미론적단위를 이루며 구조적통일성과 완전성을 가질수 있

게 한다.

그러나 결합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혼성법과 합침법은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측면을 가지고있다. 즉 합침법이 결합하는 두개의 구성요소(말뿌리)가 결합후에도 자기의 이전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게 하는 수법이라면 혼성법은 결합에 참가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말뿌리들이 음성적으로나 의미적으로뿐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서로 《줄여지게》되므로 자기의 본래의 형태중에서 일부분을 보존하게 되는 수법이다.

우의 실례에서 보면 합침법의 경우에는 결합후에도 자기의 이전의 형태들을 그대로 보존하고있지만 혼성법의 경우 《정휴양소》에서는 《(정양소에서)-양소》가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혼성법은 두개이상의 말뿌리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합침법과 공통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결합의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가지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혼성법에서는 의미적인 단위들이 연결될 때 토가 전혀 리용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합침법과 차이를 가진다.

합침법의 경우에는 때에 따라 의미적단위들이 결합할 때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토가 끼여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합침법으로 이루어진 《찬물》은 《차다》라는 의미적단위와 《물》이라는 의미적단위가 합쳐져 이루어졌는데 이 의미적단위들사이에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 규정토 《ㄴ》이 끼여들어가면서 합침을 이루고있다.

그렇지만 혼성법으로 이루어진 《금릉동굴》에서는 모란봉의 다른 이름인 《금수산》에서 《금》자를 따고 《릉라도》에서 《릉》자를 따는 방법으로 《금릉》을 먼저 이루고 여기에 《동굴》이라는 말뿌리가 합쳐져 이루어졌다.

만약 혼성법으로 이루어진 이 단어에 토를 첨부하여 본다면 《금수산과 릉라도를 련결하는 동굴》이라는 옹근 하나의 단어결합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이처럼 혼성법은 합침법과 서로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조성수법인것이다.

또한 혼성법은 줄임법의 한 갈래인 합성 줄임법과도 서로 구별된다.

원래 줄임법은 바탕말의 말소리구성에서 일부를 줄이여 새말을 이루는 수법이다.

단어조성수법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줄임 법에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 있다고 볼수 있다.

그 하나의 유형은 발음생리적조건에 따르는 어음론적현상에 의하여 비교적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소리마디줄임법이다.

례: 머리카락(머리칼)

부끄러움(부끄럼)

주룩주룩(주루룩)

다른 하나의 유형은 언어교제의 간결성을 보장하려는데로부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합성줄임법이다.

례: 공업대학(공대)

지하철도(지철)

마디줄임법과 합성줄임법은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가진 두가지 류형들이다.

여기에서 마디줄임법은 단어나 단어결합에서 소리빠지기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소리마디가 줄어지는 단어조성수법이기때문에 혼성법과는 거리가 멀다.

때문에 줄임법의 테두리안에서 혼성법과의 대비는 철저히 마디줄임법이 아니라 합성줄임법과의 대비를 넘두에 둔다.

합성줄임법에 대하여 좀 더 간단히 말하면 합친말명사에서 주되는 뜻을 나타내는 일부의 소리마디나 말마디만을 따내어 하나의 새로운 명사적말뿌리를 묶는 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합친말명사를 이루고있는 몇개의 소리마디나 말마디들가운데서 일부의 소리마디나 말마디만을 따서 하나의 명사적말뿌리로 묶으면 나머지 소리마디나 말마디들은 스스로 줄어지게 되며 따라서 본래의 합침말 명사와 대조를 이루는 간결한 형태의 새로

운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수법이 합성줄임법인것이다.

실례로 《평양제1백화점》을 《1백》으로, 《일본제국주의》를 《일제》로 만드는 수법이다.

합성줄임법의 가장 주되는 특징은 발음과정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마디줄임법과는 달리 언어교제를 될수록 간결하게 하려는데로부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줄임법이라는데 있다.

혼성법은 합성줄임법과 마찬가지로 결합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소리마디의 일부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공통성을 가진다고 할수 있다.

례: (혼성법): 랭온풍기(랭풍기+온풍기),  
라선시(라진시+선봉군)

(합성줄임법): 류마(류산마그네시움),  
교대(교원대학)

하지만 합성줄임법은 위의 실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시기의 어휘구성속에 그에 해당되는 본래말이 있는 경우이어야 하지만 혼성법인 경우에는 그에 해당되는 본래말이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래말은 합성줄임법 조성의 감새로 되는 단어만을 넘두에 둔것이다.

위의 실례에서 보면 합성줄임법으로 이루어진 《류마》의 경우에는 《류산마그네시움》이, 《교대》의 경우에는 《교원대학》이라는 본래말(단어)이 조선어어휘구성속에 확고히 자리잡고있다. 하지만 혼성법으로 이루어진 《랭온풍기》의 경우에는 《랭풍기와 온풍기》, 《라선시》의 경우에는 《라진시와 선봉군》이라는 혼성법조성의 감새로 되는 단어결합은 엄연히 존재하고있으나 이것이 결코 본래말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본래말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이 합성줄임법과 혼성법을 가르는 기본표식으로 된다.

실례로 《거울》, 《입술》, 《털》이라는 단어

는 원래 《거우루》, 《입시울》, 《터럭》을 줄여서 이루어진 《준말》이었지만 오늘날 그에 대응하는 본래말들이 다 없어졌기때문에 준말이라고 볼수 없다.

이와 같이 합성줄임법과 혼성법의 근본차이는 바로 단어조성에서 그 실머리로 되는 조성소재가 무엇인가 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보면 합성줄임법에서 리용되는 단어조성재료는 철저히 본래말이며 그 언어적단위는 단어이지만 혼성법에서 리용되는 단어조성재료는 본래말(단어나 말뿌리)이 아니라 론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서로 련관되어있는 단어들의 결합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합성줄임법으로 이루어진 《정주》의 경우에는 본래말(단어)이 《정맥주사》라는 단어이지만 혼성법으로 이루어진 《수출입》의 경우에는 본래말은 없고 《수출과 수입》이라는 서로 련관되는 단어들의 결합만 있을뿐이다.

이처럼 혼성법과 합성줄임법은 형태적인 측면에서 피상적으로만 보면 똑같은것같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엄격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부류의 줄임법들인것이다.

이러한 혼성법은 단어조성수법의 측면에서 볼 때 몇가지 특성을 가진다.

그 특성은 첫째로, 혼성법이 섞임과 줄임의 복합적성격을 가진 단어조성수법이라는 것이다.

실례로 《들물》과 《날물》로부터 《들날물》을 만드는 수법은 동어반복으로 되는 《물》이 하나 줄어들었기때문에 합침법이 아니다. 같은 단위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줄어들었다는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합쳐졌다는것은 단순한 합침도 아니고 단순한 줄임도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섞임이 기본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그 밑바탕에는 줄임이 깔려있다고 보는것이 옳을 것이다.

특성은 둘째로, 단어조성적측면에서 선택

제한의 원리가 작용하는 수법이라는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택제한이라는것은 어떤 언어요소나 언어단위들가운데서 일부 단위를 골라내고 나머지는 밀어던지는 현상을 말한다.

실례로 《평안도》라고 하면 옛날 조선팔도의 지명의 하나로서 이것은 평양과 안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름이다.

이 지명을 만드는데서 평양의 《평》과 안주의 《안》을 따낸데는 선택의 원리가 작용한것이지만 나머지를 버린것은 일종의 제한이라고 말할수 있다.

특성은 셋째로, 기본적으로 한자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출발소재로 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이다.

혼성법은 《오빠와 누이》로부터 《오누이》를 만드는 경우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어버이》를 만드는 경우와 같이 일부 고유어들을 출발소재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자말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혼성법이 서로 의미적으로 련관되는 단어들의 일부만을 따서 새롭게 만들어놓는 수법이기때문에 고유어로 된 단어들에서 일부 소리마디만을 따서 새말을 만들기가 힘든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자말로 된 단어들이 경우에는 한자가 뜻글자인것으로 하여 그것을 이루는 개별적인 소리마디들도 일정한 뜻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단어 《관병일치》에서 《병》이 《병사》의 의미를 그대로 나타낼수 있고 《관》역시 《지휘관》의 의미를 나타낼수 있으며 사람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수 있는것이다.

이것은 조선어에서 혼성법이 고유어에서보다 한자말로 된 단어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는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혼성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조선어의 단어조성수법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